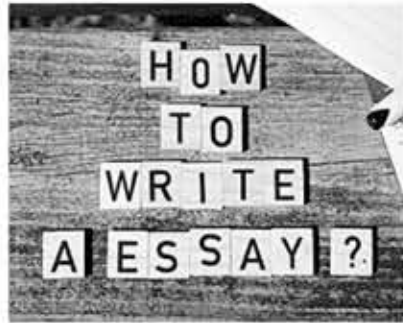


대입 에세이, 이렇게 쓰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에세이 쓰기는 고역이다. 에세이는 원서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서류다. 에세이는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의 됴됨이나 가치관이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과 맞아 떨어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미국 대학 컨설팅업체 '유학브레인'(uhakbrain.com)이 대학의 입학심사관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에세이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를 정확히 파악해 나의 의견, 나의 경험, 나라는 사람의 가능성 등에 관해 기술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1. 가능한 한 일찍 작성을 시작하라.

보통 학생들은 11학년이 시작될과 동시에 에세이 작성에 대한 구상을 시작한다. 한 학기 길게는 1년 가깝게 에세이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에 관해 선생님과 상의하며, 내용 작성에 대해 코멘트를 받고, 수정을 거듭한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을 들일수록 좋은 글이 나온다.

2. 전략적으로 생각하라.

에세이를 읽는 대학의 입학심사관에게 나를 잘 포장해서 어필해야 한다. 그러려면 해당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에세이 질문에 정확히 일치하는 답을 해야 하며, 장황하게 서술하지 말고 논리적이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입학심사관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사건을 서술해보자.

3. 질문에 답하라.

앞서 말한 것처럼 묻는 내용에 일치하는 에세이를 기술해야 한다. 엉뚱한 내용을 풀어나간다면 아무리 멋지게 작성했다 해도 '소용 없음' 을 명심하자.

4. 술책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대학들의 다양한 에세이 주제들을 보다보면 무엇을 묻는지 난해하거나 나에게 대입해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들이 있다. 질문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고, 그 질문의 밑바탕에 깔린 의도

5. 논리정연하게 기술하라.

에세이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 표현되었는지, 일관성있게 기술되고 어필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확인해야 한다. 논지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다면 불필요하니 과감히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글의 흐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있게 하나의 주제로 귀결되어야 한다.

6. 나에 대해 정직하게 보여라.

다른 사람의 에세이를 가져온다면 그 글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진정성이 빛을 바랜다. 반드시 나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진심을 담아 어필해야 한다.

7. 끊임없이 수정하고 도움을 받아라.

가능한 한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학교의 영어선생님 나를 잘 아는 선생님, 먼저 대학입학을 경험한 선배 등 가능한 한 여러 전문가에게 나의 에세이를 보여주고 조언을 구해보자.

8. 마지막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

Word Limit (분량 제한), Perfect grammar and spelling (문법과 스펠 오류가 없도록), Word choice (어휘의 선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완벽해야 한다. 사소한 실수가 에세이에 들인 나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한다.

'Early Decision II' 지원 가능한 명문대학

미국 내 대부분 연구 중심 상위권 대학들의 Early Decision 마감일은 11월 1일이다. 리버럴 아츠 칼리지들은 11월 15일이 많다. 합격자는 대부분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발표한다. 그런데 Early Decision에 지원했다 실패했다면 'Early Decision II' (ED II)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Early Decision II' (ED II)는 미국 대학 입학 과정에서 제공되는 또 다른 지원 옵션이다. 이는 'Early Decision' (ED)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하며, 학생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ED와 ED II의 주요 차이점은 지원 마감일과 입학 결정 발표일이다.

■ ED II의 주요 특징

- 구속력 있음(Binding): ED II도 ED와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학생이 ED II로 지원한 대학에 합격하면, 그 학생은 그 대학에 등록해야 하며, 다른 대학의 입학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
- 단일 선택: 학생은 한 번에 한 대학에만 ED II로 지원할 수 있다.
- 지원 마감일과 입학 결정 발표일: ED II의 지원 마감일은 보통 1월 1일 또는 15일 정도이며, 입학 결정은 2월 중순에서 말에 발표된다. 이는 일반적인 Early Decision의 마감일인 11월 1일 또는 15일보다 늦다.
- 빠른 결과: ED II를 통해 지원한 학생들도 일반 지원자보다 빠르게 입학 결정 결과를 받게 된다.
- 재정 지원: ED II 지원자도 합격한 경우 다른 대학의 재정 지원 제안을 비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을 잘 고려해야 한다.

■ 왜 ED II를 선택할까?

●추가적인 시간: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향상시키거나 표준화된 시험 점수를 높이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 ED II는 유용할 수 있다.

●다른 옵션 고려: 학생이 Early Decision으로 지원했으나 불합격한 경우, ED II를 통해 다른 최우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신중한 결정: ED II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선택을 더 신중하게 고려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ED II는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학생과 가족은 이 옵션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학생이 해당 대학에 확실히 다닐 의향이 있는 경우에만 ED II를 선택해야 한다.

다음은 ED II를 제공하는 최상위권 대학들이다(#표시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 Bates Colleges#, Boston College, Boston University, Bowdoin College#, Carleton College#, Carnegie Mellon University, Claremont McKenna College#, Colby College#, Colgate University#, Davidson College#, Emory University, Hamilton College#, Haverford College#, Johns Hopkins University, Lehigh University, Middlebury College#, New York University, Pomona College#, Smith College#, Swarthmore College#, Tufts University,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of Richmond#, University of Rochester, Vanderbilt University, Vassar College#, Wake Forest University,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Wellesley College#, Wesleyan University#

이들 대학의 ED II 지원 마감일은 내년 1월 1일~15일이다.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지원 마감일을 확인할 수 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시민권 영주권 신청, 밀입국하신 미군 부모님, 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